

교회:

부서:

이름:

예수교사도의신앙교회 출판부

청장년부 공과

제 10 권

다른 사람들과 함께



<청장년부 공과 제 10 권>

주제: 다른 사람들과 함께(영적 의무)

공과	제목	쪽
제118공과	나를 따라 오너라	1
제119공과	영적 지도자들에게 복종하라	3
제120공과	하나님의 사랑	5
제121공과	신자들의 하나됨	7
제122공과	증거의 책임	9
제123공과	누가 내 이웃인가?	11
제124공과	영적으로 연약한 자들을 격려함	13
제125공과	마귀를 대적하라	15
제126공과	보복하지 말라	17
제127공과	고용인과 피고용인의 의무	19
제128공과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라	21
제129공과	혼인의 책임	23
제130공과	부모의 의무와 자녀의 의무	25

들어가면서

그리스도의 모든 기본적인 가르침의 밑바탕에는 그리스도인이 주변 사람들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는 데 필수적으로 중요한 원칙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원칙 중 하나를 위반하거나 무시하면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어집니다. 반면에 성경은 하나님이 주신 지침을 받아들이고 그 지침을 인간 관계의 근거로 삼는 사람들에게 상당한 유익과 상을 준다고 말합니다.

이번 분기에는 이러한 하나님의 지침에 초점을 맞추고 성경을 통해 그리스도인이 다른 사람들에 대할 때의 책임을 설정합니다. 먼저, 그리스도인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살펴 봄으로써, 그리스도인이 주님을 온전히 따른다면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떻게 일치할 수 있는지에 대해 깨닫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인과 목회자(사역?),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자매, 그리스도인과 영적으로 약한 사람, 이웃간의 관계를 살펴봅니다. 크리스마스에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인간에게 보여졌는지를 살피면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대해 배울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사탄에 대한 방어를 구축하고 그리스도인을 전복시키려는 그의 시도에 저항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도록 돕습니다.

우리가 성경으로 우리의 삶을 가늠해 보는 것은 중요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디모데후서 3:16-17).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전적으로 하나님 말씀의 교훈 위에 세워질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나타내려는 하나님의 계획에 귀중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제118공과 나를 따라 오너라

성경본문: 마태복음 4:18-22, 11:28-30, 16:24-27

보조성구: 마가복음 10:17-21

요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마태복음 16:24)

그리스도는 과거에도 계셨고 현재도 계시며 미래에도 영원히 계시는 분으로서, 지극히 거룩하시고 지극히 지혜로우시며 전능하신 분이시다. 그분께 복종하면 것처럼 복된 분과의 복된 관계를 맺게 된다. 이 관계는 우리의 다른 모든 인간 관계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 상대가 누구든지 간에 그러하다. 그리스도를 우리 삶의 최우선 순위에다 모시면 그 분은 우리에게 인간관계를 어떻게 하여야 할지를 그의 교훈을 따라 가르쳐 주신다.

1. 오늘의 첫 번째 본문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셨다. 그 부르심이 두 번째 본문(마 11:28-30)에서는 누구나 오라는 보편적인 초청으로 확대되었다.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기 위하여 우리가 취해야 할 단계들을 설명해 보라.

2. 그리스도의 멍에는 우리의 짐에 비하면 쉽고 가볍다. 그러나 사람들은 ‘멍에란 무겁다’ 라고 생각하여 그 이상의 다른 생각을 하지 못한다. 곧 멍에를 매면 실제로는 짐과 노력이 경감된다. 약하고 덜 훈련된 짐승일수록 튼튼하고 리더격인 짐승에다 맨다. 그러면 리더격인 짐승이 더 무거운 짐을 끌거나 혹은 대부분의 무게를 감당하게 된다. 이를 염두에 두고서 예수님의 멍에를 맬 때의 유익을 들어보라.

3.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나를 따라 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하신 말씀 중 “따라 오너라”의 뜻을 사전적으로 설명하라. 주님이 원하셨던 것은 무엇이엇겠는가?

4. 두 제자의 반응은 어떠하였는가? 성경에서 그 반대 반응을 보인 인물 하나

를 들라.

5. 두 제자가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게 됨으로 해서 그들이 접촉한 다른 이들에게 어떤 영향이 나타났던가?(참조 행 4:13)

6. 예수님이 “나는 십자가에 달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목둘레의 장식용 십자가 사슬이나 혹은 윗도리 양복의 장식용 편이나 교회당 정문의 광택 나는 십자가 상징물을 말씀한 것이 아니었다. 주님은 문자 그대로 자기부인과 희생의 증거인 고통과 죽음의 도구로서의 거친 십자가 형틀에 달릴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우리 신자들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네 십자가를 지라’는 명령에 어떠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가? 또 우리 자신의 십자가를 질 때 어떤 유익이 있는가?

7. 마태복음 16:26절의 말씀 , 곧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를 설명하라.

8. 갈라디아서 5:22,23절은 그리스도와 친밀한 관계를 갖게 될 때 우리 삶에 나타나는 특징들 몇을 보여준다. 이것들이 우리의 인간관계에 끼치는 영향을 설명하라.

제119공과 영적 지도자들에게 복종함

성경본문: 에스겔 33:1-11 ; 예레미야 3:15

보조성구: 에베소서 4:11-17 ; 데모데전서 5:17 ; 베드로전서 5:1-5

요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저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데살로니가전서 5:12,13)

성경은 여러 곳에서 목회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양무리에게 가르치도록 명령하고 있다. 또 그들의 충성여부를 장래에 심판하리라고 경고한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우리 영혼의 복지를 책임지고 있는 이들 영적 지도자들에게 순종하여야 한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다.

1. 구약시대에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영적으로 지도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무슨 준비를 하셨는가?(요1:17 ; 벰후 1:21)

2. 율법시대의 백성들은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해지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는 말씀에 절대 복종하여야 했다. 불순종하면 형벌, 곧 많게는 죽음 당하는 벌이 내렸다(히 10:28). 성경은 도처에서 하나님이 우리 위에 영적 감독자로 세우신 이들에게 우리가 복종하여야 함을 밝히고 있다. 하나님의 명령과 그가 세우신 우리의 지도자들에게 우리가 순종하여야 할 이유를 설명하라.

3. 신약 교회시대에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영적으로 지도할 자들로 누구누구를 세우셨는가?(엡 4:11,12)

4. “목사”란 통상적으로 교회 회중의 지도자이다. 웹스터 사전은 “양떼를 치는 목자 혹은 사람들에게 영적인 꼴을 먹이는 자”라고 한다. 성경시대의 양 치는 목자의 책임 몇을 열거하라. 또 이를 오늘의 목사의 의무들과 비교하라.

5. 목사는 교회 회중을 위하여 어떤 결정을 내릴 때 하나님의 지혜와 인도하심을 구하여야 하며, 회중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신실하게 돌보아 주어야 한다. 이 일이 중요한 이유를 설명하라.

6. 세상 학교에서 학생들은 종종 자율적인 사고와 권위에 대한 반항을 배우고 또 간접적이기는 하나 연장자들에게 복종할 필요가 없다는 식의 영향을 받는다. 그러나 성경(히 13:17)은 이러한 인본주의적인 가르침을 어떻게 반박하고 있는가?

7. 우리는 자녀들에게 “나이 드신 분들과 부모와 목회자들에 대한 존경과 복종”을 몇 살 때에 가르쳐야 하는가?(사 28:9)

8. 하나님은 목사들에게 어떤 삶을 살도록 명령하고 있는가?(딤후 2:6,8) 목사의 거룩한 삶은 교회 회중과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9. 우리 평신도가 우리의 영적 지도자인 목사님들의 결정을 따지고 들며 그 이유를 알려고 할 필요가 없는 이유를 설명하라.

제120공과 하나님의 사랑

성경본문: 마태복음 1: 21, 2:1-15 ; 요한복음 16:27

보조성구: 베드로전서 1:8 ; 요한일서 3:8, 4:9,10

요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요한일서 4:9)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세상에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을 주신 것이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야말로 기독교의 본질이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에 핵심 열쇠이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실 뿐더러, 사랑 자체이시다. 모든 인간의 사랑은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것이든 인간을 향한 것이든 간에 그 근원은 하나님이다. 만일 사랑이 하나님과 동료 인간을 향한 것이 아니라면 그 사랑은 죽은 것이요 무가치한 것이다. 그리스도인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여야 하고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여야 한다. 형제 뿐 아니라 원수도 사랑하여야 한다. 사랑은 모든 성도의 미덕들 뿐 아니라 성도들 자체를 한 가지로 묶는 끈이다.

1.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지고하신 “선물”이라고 말한다(고후 9:15). 이 말의 의미를 설명하라. 세상의 선물들의 특성을 하나님의 이 선물과 비교해 보라.

2. 선물들에는 그 나름의 특성들, 곧 선물의 유용성과 독특성과 가치성과 근원 및 영속성 등이 있다. 이런 면에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예수 그리스도)의 각 특성들을 간략하게 말해보라.

유용성

독특성

가치성

근원

영속성

3. 예루살렘에 온 동방박사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구현인 그리스도의 출생에 관한 성경지식이 거의 없는 듯하다. 그들은 이 새로 나신 왕을 찾는 동안 많은 장애물과 문제들에 부딪혔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인도해 주는 수

단(별)을 마련하시어 그들의 소원이 이뤄지게 하셨다. 지금은 하나님이 어떤 수단을 써서 사람들을 자기에게로 인도하시는가?

4.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가져온 예물들은 그들의 애초 생각을 초월하는 어떤 특별한 의미를 함축하고 있었다. 황금은 신성을 대표하고, 유향은 제사장 직을 대표하고, 몰약은 고난을 상징하였다. 아래 성구들을 각 예물들과 짝을 맺어보라.

이사야 53:4,5

누가복음 1:35

히브리서 5:6

5. 천사가 요셉에게 그리스도의 이름을 “예수”로 하라고 한 이유를 설명하라.

6. “예수”라는 이름은 마리아와 요셉이 지은 것이 아니고 가브리엘 천사장이 그렇게 하라고 전해준 이름이다. 그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히브리어 명인 “여호수아”를 음역한 것이다. “예수”라는 이름이 하나님의 구원계획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성경(빌 2:9-11)에서 찾아보라. 또 당신의 이름의 뜻을 설명해 보라.

7.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 볼 때, 그것은 인간의 필요를 다 채워주는 것임을 깨닫게 된다. 성경(골 2:10)은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하여졌다”라고 말한다.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로서 예수께 주어진 명칭들을 들겠는데 그 뜻을 설명해 보라.

기묘자

상담자

선한 목자

생명의 떡

제121공과 신자들의 하나됨

성경본문: 에베소서 4:1-6 ; 빌립보서 2:1-4

보조성구: 고린도전서 1:10 ; 베드로전서 1:22

요절: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체휼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베드로전서 3:8)

본 공과에서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의 관계를 살펴보자. 이미 살핀 대로 좋은 관계는 모든 지체가 그리스도를 잘 따르고 또한 그들의 영적 지도자들에게 순종함으로써 시작된다. 오늘의 주 요절말씀대로 행한다면 우리는 그 결과 하나됨을 맛보게 될 것이다. 이런 일이 우리 삶 속에 매일 이뤄지면,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있을 것이며 또한 주님의 일들이 많이 성취될 것이다.

1. 두 세 사람이 하나 되어 일함으로 놀라운 결과를 이뤄낸 예를 성경이나 다른 데서 들라.

2. 오늘의 주 요절과 본문에 나오는 다음 단어들의 의미를 설명하라.

체휼

세움 (교화함)

힘씀

용납함

3. 성경(엡 4:2)은 “사랑 안에서 서로 용납하라”고 말한다. 누가 당신을 용납해 준 체험을 하나 말해 보라.

4. 당신의 신체의 연합과 그것이 깨졌을 경우(질병)를 생각해 보라. 또 에베소서 4:15,16절의 뜻을 설명하라.

5. 유명한 성경 주석가인 아담 클라크는 “일치하여”란 말을 이같이 설명했다. “이 말은 그들의 모든 생각과 애정과 욕구와 소원이 한 가지 대상에 집중되어 있어서 모든 사람이 견해 상 한 가지를 가지고 있고 따라서 한 가지 욕망만을 가지며 오로지 한 가지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모든 마음의 그것을 한 가지로

아뢰는 상태를 뜻한다”. 그리스도의 신령한 몸(교회)이 한 가지로 일치하였을 때의 유익을 말해 보라.

6. 기독교의 연합과 세상의 정당이나 조합 등의 조직에 나타나는 연합의 차이점을 말하라. 기독교의 연합을 계속 보존함이 중요한 이유를 설명하라.

7. 요한복음 17:11-23절은 “하나됨”의 필요성을 무려 네 번이나 강조하고 있다. 이 성구들에서 이끌어 낼 수 있는 결론은 무엇인가?

8.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사람들에게 주신 영적 역할 다섯을 들고 그 다섯을 주신 이유를 말하라.

9. 사람은 저마다 그 성장배경이나 성격이나 편애함이 다르다. 그런데 어떻게 신자 간에 하나됨을 이룰 수 있는가?

10. 하나됨을 방해하는 어떤 상황이 올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제122공과 증거의 책임

성경본문: 사도행전 16:13-32 ; 마가복음 16:15 ; 누가복음 15:1, 24:47

보조성구: 야고보서 5:20

요절: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데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취리라”(다니엘 12:3)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그의 제자들에게 “너희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여 너희가 증거의 능력을 받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행 1장)고 하셨다. 지금도 그 제자들에 대한 그리스도의 목적은 동일하시다. 자기 백성이 구원받지 못한 이웃들에게 증거하여 그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신다. 우리 모두가 다 외국에 선교사로 갈 수는 없겠지만, 그러함에도 여전히 복음 확장에 도움을 줄 수는 있다. 바다 건너편의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겠으나, 바로 우리 이웃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면 되는 것이다.

1. 복음을 “증거 한다”의 뜻을 설명하라. 또 거듭나지 못한 자가 그리스도의 좋은 증인이 될 수 없는 이유를 말하라.

2. 말로 증거 할 때 그리스도를 지칭해서 객관적으로 하든지, 아니면 자신의 체험으로 주관적으로 하든지 할 수 있다. 마가복음 5:18,19절과 사도행전 8:35 절의 증거들은 이중 어느 쪽인가? 모든 성도가 증거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은 이 둘 중 어디에 해당하는가? 또 그 이유는 무엇인가?

3. 오늘본문은 바울을 “주로 말하는 자”로 언급한다. 그의 증거는 객관적인 증거와 주관적인 증거 중 어느 쪽인가?(행 26:9-19 참조)

4. 바울과 실라는 지진이 일어나기 전 빌립보 간수에게 “말로써 무슨 증거”를 한 적이 없었다. 그럼에도 간수가 지진이 일어났을 때 “내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라고 물은 것을 보면, 그같이 말하도록 만들었던 무슨 증거들이 있었음이 분명하다. 그게 무엇이였을까?

5. 평소 말 이외의 다른 방법으로 예수님을 증거 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하라.
6. 가다라 지방의 그 귀신들렸다가 나온 사람은 집으로 돌아가 친구들에게 어떤 간증을 하였을 것 같은가?(막 5:1-20) 이 간증을 구약성경의 한 작은 계집종이 나아만의 처에게 했던 간증과 대조해 보라(왕하 5:1-3). 다른 주안점은 무엇이었는가?
7. 오늘본문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한다. 강단에서 설교할 수 있는 특권이 없는 평신도에게 이 말씀을 적용하여 설명해 보라.
8. “예수를 증거 하라”는 성경의 명령은 몇 특정 인사들에게만 주시는 영적 은사의 일종인가? 아니면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것인가?(벧전 4:15)

제123공과 누가 내 이웃인가?

성경본문: 누가복음 10:25-37

보조성구: 신명기 15:7 ; 이사야 58:10 ; 마태복음 25:34-46

요절: “온 율법은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었나니”(갈라디아서 5:14)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이웃을 돕기 위해 먼 거리를 가고 많은 시간을 허비하기까지 한다”는 아름다운 본을 남기셨다. 오늘본문의 비유에서 주님은 우리 이웃이란 국적이나 신분과 상관없이 우리가 매일 만나는 바로 그 사람들임을 보여주신다.

1. 그 율법사는 예수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라고 물었다. 좋은 질문이기는 했어도 그 속에는 그의 불신실성을 보여주는 암시도 들어 있다. 그것이 무엇인지 적으라.

2. 성경(요 4:4-29, 21:8,9,12,13)은 예수님이 주변 사람들에게 형제애를 보여 주신 사례 둘을 거론한다. 그 두 경우에서 주님은 어떤 식으로 봉사하셨던가?

3. 누가복음 11:5-18절에서 친구가 달라고 한 것을 주지 못한 것에 주인은 어떤 변명을 하고 있는가? 그런 변명이 찾아온 친구에게 받아들여졌던가? 친구가 안 받아들인 이유를 설명하라.

4. 구약시대 제사장의 의무 중 하나는 짐승을 잡아 희생을 드리고 분향하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것이었다. 레위인들은 이 제사장들을 도왔다. 그래서 그들은 제사장들의 메시지를 들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그들이 그 의무 중 실패한 것은 무엇이었던가?

5. 당시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로부터 인간 이하의 모멸감을 받으면서 살았

다. 그래서 그들은 유대인들과는 일체의 상거래를 할 수가 없었다. 그럼에도 선한 사마리아인은 그 유대인의 고통을 보았을 때 어떻게 하였는가?

6. 요한복음 5장은 당시 심각한 신체적 중병으로 고통당하던 사람에 관하여 말한다. 그 본문 7절은 그가 고침 받지 못한 이유를 든다. 아래에 적어 보라. 또 신체장애나 불구자들에 대하여 우리 성도들이 하여야 할 의무와 이 본문기사와의 관련성을 설명하여 보라.

7. 이웃사랑과 관련하여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를 아래 성구에서 찾아 쓰라.

마태복음 5:16

요한복음 13:35

로마서 15:2

에베소서 4:32

요한일서 3:16

8. “네 자신처럼 이웃을 사랑하라”는 오늘의 주 요절을 묵상한 후 우리가 우리 몸과 정신과 영혼을 위하여 또 물질을 위하여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는지를 몇 적으라. 이와 똑같이 이웃에게 할 수 있는 것들을 몇 적으라.

제124공과 영적으로 연약한 자들을 격려함

성경본문: 이사야 35:3,4 ; 요한복음 13:34,35, 15:12-17

보조성구: 전도서 4:9,10 ; 갈라디아서 6:1,2

요절: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고린도후서 1:24)

그리스도와 성도 사이의 관계는 보람되고 성취적인 삶의 기초가 된다. 하나님과 화목하면, 자기 자신과도 화목해진다. 이런 내적 만족감은 영적 연약성과 낙심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성도가 보여주는 봉사와 사랑으로 확대되어 입증된다. 이웃을 격려하고 세워주며, 선을 행하고 사랑하도록 영감을 복 돌아주는 이런 일은 하나님의 말씀 전반에 걸쳐 여러 모로 나타난다. 성경에서 사랑에 관하여 가장 분명히 나타난 표현 중 하나는 이렇듯 “이웃과 공유하는 사랑”이다. 우리가 이웃과 공유할 수 있는 가장 값진 것들은 우리의 시간, 달란트, 힘을 가지고서 영적으로 격려하거나 붙들어 줄 필요가 있는 자들을 특별히 세워주는 것일 것이다.

1. 누군가를 격려하는 일을 하고자 한다면, 그 방면을 볼 수 있는 영적 관찰력을 키워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어떤 이가 영적 연약성을 보여주는 무슨 표시라도 있다는 것인가?

2. 우리의 형제자매가 신앙생활에 어떤 문제가 있다면 우리는 이에 대해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가? 방관하지 않고 도와 주되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도 격려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3. 이사야 35:3,4절은 약한 자들을 위하여 우리가 해야 할 일 셋을 언급한다. 이 말씀들을 오늘날 우리가 영적으로 약한 이들을 도울 수 있는 특별한 방법 몇 가지로 쉽게 표현해 보라.

4. 거룩함에 흠은 없으나 영적으로 약한 사람과 복음의 깊은 진리에 무관심한 사람과는 달리 보아야 한다. 이 두 유형의 약한 신자를 다룰 때의 차이점을 설명하라.

5. 예수님은 제자들의 속에 성령께서 내주하실 것을 약속하셨다. 신약성경의 “파라클레토스”라는 헬라어는 “보혜사”(돕는 자)란 뜻으로써, 성령을 묘사하는데 쓰였다. 문자 그대로 “곁에 부름을 받은 자”란 의미이다. 어떻게 우리 안에서 성령의 역할이 다른 이들의 삶 속에서의 우리의 영향을 위한 모형이 될 수가 있는가?

6. 우리 성도들은 성도로서의 의무를 소홀히 할 위험이 있다. 에스겔 34:10절과 마태복음 25:44-46절을 우리에게 적용하여 보라.

7. 예수님은 우리의 가장 좋으신 “종”의 모본자이셨다. 성경(빌 2:7)은 그 분이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취했다고 말한다. 그 분은 세상에서 육체적으로 고통을 당하는 이들을 돕고자 많은 이적들을 행하셨지만 또한 영적으로 궁핍한 이들을 위해서도 많이 수고하셨다.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에는 이런 궁핍한 자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격려가 나와 있다. 어떤 격려인지를 다음 성구에서 찾으라.

아브람에게(창 15:1-6)

다윗에게(삼하 7:8-16)

제자들에게(마 14:25-27)

기드온에게(삿 6:11-23)

중풍병자에게(마 9:2)

8. 주님이 주신 “새 계명”이 무엇인지를 적고 영적으로 약한 자들 도와주고자 할 때 이 계명이 어떤 관계가 있는가도 설명하라(요 13:34,35)

9. 요한복음 15:13절의 깊은 뜻을 설명하고 또 그것을 삶 속에서 성취할 수 있는 방안을 말하라.

10. 당신이 영적으로 약해졌을 때 격려가 되었던 성경약속이나 말씀을 적어 보라.

제125공과 마귀를 대적하라

성경본문: 욥기 1:1-22

보조성구: 마태복음 4:1-11 ; 에베소서 6:13-18

요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베드로전서 5:8,9)

지금까지 배운 “관계”에 관한 공부들은 긍정적인 것들이었다. 그러나 모든 신자가 거둬나가는 순간부터 직면하게 되는 불유쾌한 상황이 있다. 이처럼 마귀의 능력은 실제적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능력에도 일정한 한계를 정하시어 더 이상은 나가지 못하게 하신다!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을 때에 도덕적인 자유의지자로서 지음 받았다. 이 때문에 사람은 흑암의 맹렬한 권세들에 저항하든지, 아니면 굴복하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힘을 그 마음에 지니고 있다. 하나님은 마귀를 저항할 수 있는 무기를 마련하실 때, 사람에게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수단도 주신다!

1. 성경은 사탄을 여러 가지 다른 이름으로 나타낸다. 아래 성구들에서 그것들을 찾아보라. 그리고 이들 이름에서 무엇을 추론할 수 있는가?

마태복음 4:3

마태복음 13:19

요한복음 14:30

고린도후서 4:4

에베소서 2:2

요한계시록 12:10

요한계시록 20:2

2. “네가 어디서 오는냐”는 주님의 물으심에 사탄은 “땅에 두루 돌아 여기 저기 다녔다 왔나이다”라고 대답했다. 지금도 사탄이 그와 같이, 아니 그 이상으로 똑같은 일을 반복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본문상의 성구를 들라.

3. 욥은 영적으로 어떤 유형의 사람이었는가? 그에게 닥친 네 가지 비극을 들라(욥 1장).

4. 이런 비극들 앞에서 욥은 즉시로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5. 하나님은 왜 마귀에게 욥을 시험하도록 허락하셨는가?

6. 예수님은 광야에서 마귀와 싸우실 적에 하늘로부터 어떤 도움을 받으셨는가?(마 3:16, 4:1,11)

7. “대적하라(저항하라)”는 말의 뜻을 정의하라(약 4:7 ; 벰전 5:9).

8. 성경(엡 6:14-17)이 말하는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여섯 가지 영적 무기들을 들라.

9. 요한계시록 12:10,11절은 무엇으로써 마귀를 이길 수 있다고 말하나?

10. 당신이 영적으로 마귀와 싸워서 이긴 싸움을 하나 들라. 무엇으로써 이겼는가?

제126공과 보복하지 말라

성경본문: 마태복음 5:38-48 ; 로마서 12:17-21

보조성구: 사도행전 7:57-60

요절: “네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잠언 24:17)

마귀와 그 추종자들은 유사 이래 지금까지 성도들을 괴롭혀 왔다. 인간의 본능은 상처 받거나 공격받으면 보복하거나 해치려는 반응을 보인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성도는 보복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치신다.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우리가 환란과 핍박을 받아도 굳게 견딜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고 말씀하신다.

1.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우리에게 해를 끼치려는 자들에게 어떻게 대하라고 말씀하셨는가?

2. 원수에게 우리가 사랑을 보일 경우, 하나님은 무엇을 되돌려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가?(눅 6:35,36)

3.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면, 원수를 향한 우리의 태도는 어떤 것이 되어야 하는가?(눅 6:27,28) 원수를 사랑함으로 해서 그리스도께 돌아 오는 이들을 성경이나 혹은 주변에서 찾으라.

4. 로마서 12:17,18절은 우리 성도가 신자들이나 불신자들 사이에서 어떤 행동을 해야 됨을 말하는가?

5. 자신에게 피해를 준 사람들에게 대한 불신자들의 일반적인 반응을 들라(잠 24:29). 자신에게 잘못된 자에 대하여 성도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벧전 3:9)

6. 마귀가 그 추종자들을 통하여 초대교회에 위협을 가했을 때 교회 성도들은 이에 보복했던가?(행 4:15-31)

7. 지금까지 원수의 공격에 우리 성도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할지에 관해 다뤘다. 그러나 마귀는 종종 같은 성도들 사이에서까지 하나 되지 못하게 하거나 악감정을 품게 하려고 시도한다. 의견이 서로 맞지 않을 때 보복하고자 하는 시험이 올 수도 있는 경우 몇을 들라.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주님은 기뻐하실까?

8. 원수가 이런 말썸대로 행치 못하도록 생명에 위협을 가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행 5:27-29)

9. 우리가 단지 성도라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고난을 당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베드로는 말하나?(벧전 4:12-16)

제127공과 고용인과 피고용인의 의무

성경본문: 에베소서 6:5-9 ; 디모데전서 6:1,2

보조성구: 신명기 24:15 ; 골로새서 4:1 ; 디도서 2:9 ; 베드로전서 2:18

요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마태복음 7:12)

하나님의 율법은 종종 두 가지로 분류되기도 한다.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의무와 동료 인간에 대한 우리의 의무 부분이다. 동료(이웃, 부하나 상사)에게 무관심하고서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착각이다. 온 세상은 어떤 교훈을 듣기 전에 먼저 그 샘플을 본다. 아마도 직장의 그리스도인 노동자의 품행에서보다 더 많이 기독교가 관찰 당하는 곳은 없을 것이다.

1. 고용주가 피고용인에게 져야 되는 책임은 무엇인가?(성경본문과 골 4:1절 참조)

2. 피고용인이 고용주에게 져야하는 제일 중요한 것을 들라(엡 6장). 또 이게 중요한 이유는?

3. 피고용인들은 종종 사장이 “너무 인색해서 급료를 적게 준다”거나 “של 틈을 안 주고 일 욕심이 많아 일만 시킨다”고 불평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사장은 계약대로 급료를 지급하기에, 자기 원대로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성경은 피고용인들이 고용주에게 인격 모독적인 언사를 해도 된다고 말하는가? 오늘 본문에서 찾아보라.

4.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라”를 설명하라.

5. 이 세상에서 성실하게 일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를 말하라. 앞 4번 질문에서 인용된 성경말씀이 “점심시간이나 차 마시는 시간”등을 계산하는 것들에는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가?

6. 고용인과 피고용인 중 누가 가장 중요한가?

7. 피고용인이 고용주에게 최고의 충성심으로 섬길 때의 결과를 들라.

8. 오늘의 주 요절을 고용인과 피고용인의 관계에다 적용하여 설명해 보라.

제128공과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라

성경본문: 다니엘 6:1-5 ; 로마서 13:1-8 ; 베드로전서 2:13-17

보조성구: 마태복음 22:21 ; 디모데전서 2:1,2 ; 대도서 3:1

요절: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방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임이니라”

(전도서 10:20)

성경에서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한 가장 좋은 실례는 다니엘을 들 수 있을 것이다. 그는 왕가의 후손에 속한 것으로 보이는 청년으로서, 동족과 고국을 떠나 이방에 강제로 포로가 되어 바벨론의 도성의 궁성에 있게 된다. 그는 노예상태에서 그들을 증오하고 원한과 악감정을 느끼기가 더 쉬웠을 그런 환경이었다. 그럼에도 그는 많은 시련과 여러 해의 봉사를 거쳐 이방환경에 순응하였다. 이에 이방의 아무도 그에 대해 흠을 잡을 수가 없게 되었고 결국에는 모함자들이 하나님과 다리오 왕 사이에 양자택일 하도록 그를 몰고 가게 된다. 그만큼 다니엘은 바벨로니아와 메데와 페르시아의 시민법을 하나님의 율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 복종하였고 그가 신뢰하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하나님의 지혜로 인하여 왕 다음 가는 최고의 실권자의 자리에까지 오르게 되어 법 집행자가 되었다.

1. 청년 다니엘은 포로상태에서 자기의 “권세에 대한 협동심과 복종심”을 그 권세에 대한 호소력과 어떤 식으로 조화시키고 있는가?(단 1:1-6)

2. 왜 바울과 베드로는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어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순종하라”는 교훈을 했을까?

3. 당신이 알고 있는 두 가지 법 조항을 들고 거기에 복종할 때 오는 이득을 말하라.

4. 로마서 13:5절에서 법을 지키는 두 가지 동기들을 들라.

5. 최근의 신문기사에서 법을 사소하게 어김으로 해서 결국 큰 문제가 되버린 경우를 들라.

6. 우리 신자들은 현존하는 조세법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

7. 가령 당신이 전체주의 국가에서 살고 있으므로 공개적으로 신앙고백을 하거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가 없게 되었다고 가정한다면, 이에 대해 당신은 어떤 행동을 취하겠는가? 그 이유는?

제129공과 혼인의 책임

성경본문: 에베소서 5:22,32 ; 마태복음 19:3-6

보조성구: 창세기 2:18,22-24 ; 베드로전서 3:1-7

요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창세기 2:24)

모든 인간관계 중 제일 가까운 관계는 결혼으로 시작된다. 결혼은 하나님께서 에덴동산에서 세우신 것이었다.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남자)이 그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하나가 되는 것이다. 이는 아내가 “남자의 인간관계 중에서” 제일 가까운 동무라는 것과 또 여자가 가질 수 있는 인간관계 중 제일 가까운 사람이 남편임을 보여준다. 두 사람은 인생의 즐거움도, 슬픔도, 역경도 나누고 함께 공유하면서, 서로를 위로하고 복돋워줄 수가 있다.

1. 성도의 혼인은 신랑 신부 두 사람이 그리스도께와 서로에게 온전한 서약을 하는 것이다. 그 무엇도 이 서약을 보류하지 못한다. 이 혼인은 서로의 신실성과 하나됨을 보증하는 것으로, 이로써 양자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바라시는 의도대로 될 수 있는 도움을 입는다. 이 혼인에는 서약과 함께 책임이 따른다. 신랑 신부 양자가 져야될 책임을 들라(참조 본문 외에 신 6:6,7 ; 딤후 5:8)

2. 하나님은 능히 자기의 목적을 위하여 성도의 혼인을 사용하실 수도 있으시고 또 그렇게 사용하신다. 하나님은 자기 영광과 신혼부부의 영적 유익을 위하여 그들을 단련하신다. 그러나 이것도 신혼부부가 자기네를 위하여 하나님이 마련하신 지시대로 순종하여 나갈 때 가능하다. 남편과 아내는 어떻게 혼인의 영적 책임을 완수 할 수가 있는가?

3. 남자와 여자가 혼인서약을 한 후에는 비로소 혼인하여 삶을 시작하게 된다.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마 19:6)는 예수님의 말씀은 무슨 뜻인가?

4. 결혼에서 남편과 아내의 역할을 분명히 하면, 부부간의 분열을 일으키는 중요한 원인 중 하나가 미연에 제거된다. 이에 관하여 하나님의 말씀은 특별한 지시들을 내리고 있다. 성경적인 권위부여와 책임 할당으로 엄격한 부부관계가 초래되기 보다는 도리어 가정의 질서와 이해가 촉진된다. 바울 사도가 “남편은

아내의 머리라...”고 한 말씀의 뜻을 설명하라.

5. 하나님의 인도아래 결혼한 부부는 모두에게 만족한다. 곧 남자는 여자가 자기를 위하여 지으심 받은 것을 깨닫고 여자는 남자가 자기 없이는 불완전하다는 것을 깨닫는다. 서로가 서로에게 상대방을 자신의 확대판이며 완성품으로써 소중히 여긴다. 이 생각을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엡 5:29)라는 말씀을 사용하여 자세히 설명하라.

6. 남녀 간의 혼인으로 인한 사랑의 유대는 성경에서 신부인 교회와 신랑이신 예수님과의 단단한 유대의 실례로써 이용되고 있다. 이 양자 간의 유사성을 열거하라.

7. 부부는 항상 서로에게 “사랑하오”나 “존경하오”의 표시를 말로나 태도로 나타내야 한다. 그런 관심을 보여야 하는 중요한 이유를 들라(벧전 3:5-7).

8. 부부는 자기네 결혼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는 것과 또 “이후 계속 함께 행복한 결혼생활을 즐기게 되리라”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가 있는가?

제130공과 부모의 의무와 자녀의 의무

성경본문: 부모의 의무 : 신명기 6:7 ; 고린도후서 12:14 ; 에베소서 6:4 ; 디모데전서 3:4 ; 디도서 2:4 / 자녀의 의무 : 신명기 27:16 ; 잠언 20:11 ; 에베소서 6:1-3

요절: “또 아버지야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에베소서 6:4)

지금껏 수많은 교육자들과 심리학자들과 전공학자들이 어린이 교육과 양육에 관한 책들을 써냈다. 그들은 이렇게 혹은 저렇게만 하면 인류의 온갖 병폐들이 크게 감소하리라고 느끼는 양 싶다. 그러나 주님의 교양과 훈계로 자녀들을 양육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많은 이들이 찾지 않는 것은 참으로 슬프다. 만일 하나님의 계획대로만 어린이들을 교육한다면 온 세상은 더욱 살기 좋은 곳이 될 것이다.

1. 부모는 가정에서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책임이 있다. 성경을 읽고 배우는 것이 중요한 이유를 설명하라.

2. 잠언 22:6절의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를 설명하라. 부모는 자기 자녀가 “세상에서 어떤 특별한 목표”에 이르도록 하려고 자녀들의 교육과 훈련에 관심과 시간과 물질을 아낌없이 쏟아 붓는다. 그러나 자녀들의 영혼구원에 우선적으로 목표를 둔다면 영적 훈련에 어떤 우선권을 두게 되겠는가?

3. 바울은 성경(고후 12:14)에서 고린도교인들이 그의 필요한 것들에 대해 부담을 느끼지 않기를 원하는 자기 나름의 이유를 진술한다. 그는 여기서 부모의 어떤 의무를 언급하고 있는가?(딤후 5:8)

4. 아버지의 의무는 자녀를 바로 잡아 훈계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여 자녀의 기분을 상하게 할지라도! 이와 관련하여 오늘의 주 요절의 뜻을 설명하라.

5. 바울은 젊은 여자에게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라”고 권면했다. 어린이나 청소년들에게 사랑을 주지 못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가정적인 상황들을 들어보라.

6. 오늘 성경본문에 “부모를 공경하면 장수하고 땅에서 잘 되리라”고 했다. “공경한다”의 뜻과 우리의 장수와 의 관계를 설명하라.

7. 잠언 20:11절의 “비록 아이라도 그 동작으로 자기의 품행의 청결하며 정직한 여부를 나타내느니라”를 풀이하라.

8. 잠언 23:22절의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네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는 말씀은 옛적에 씌여진 것이다. 오늘날에도 그 말씀이 적용될까? 그렇다면 그 이유는?

9. 모세율법 아래서는 부모를 공경치 않거나 멸시하면 그 자녀들에게 저주가 선포되었다. 이와 비슷한 법이 오늘날에도 어떤 식으로 강제될 수가 있는가?

10.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를 들라.